

플라스틱 없는 순창만들기 총력

군, 종이 빨대 2만개 보급 CS 6대 실천운동 계획 마련

앞서기는 농촌환경운동의 전격적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클린순창 운동이 새롭게 진화 한다.

군은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종이 빨대 2만개를 구입해 본격 보급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사용억제 및 필요시 종이빨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집중되고 있는 커피 판매점에 보급해 지역주민들에게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깨끗한 순창 만들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최근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남용으로 범 지구적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발 빠른 조처다. 더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클린순창운동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계획에도 들어간다. 군은 클린순창핵심참여단체, 마

을경로당, 노인대학, 어린이집 등 각 참여단체별 CS(Clean Sunchang)6대 실천운동에 참여할 세부 실천 계획도 마련했다.

CS 6대 실천운동은 ▲마을생활환경정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폐비닐 수거체계 확립 이 주 내용으로 군은 이번에 클린순창핵심단체 220명, 마을 경로당 22개소 440명, 어린이집 12개소 200명, 노인대학 120명 등 계층별로 세부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렁이 또는 다육이 화분 만들기, 재활용 분리배출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도 연계해 환경 보호의 필요성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클린순창운동은 황숙주 군수 취임 후 추진한 농촌환경정화 운동으로 농촌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복원해 청정지역을 만들고 주민들의 의식까지 개혁하는 운동이다. 지역에 있던 불법 소각장을 근절하고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폐비닐 수거 등에 집중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순창군의 쓰레기 반입량은 크게 줄었다.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500톤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26톤이 감소했다.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 1,382톤에서 1,367톤으로 15톤이 줄었다. 수거지역이 확대된 결과로 실제 감량은 78.6톤의 감량이 이루어졌다. 황숙주 군수는 "클린순창 운동이 성과를 내며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면서 "종이빨대 보급 등 좀더 진화하는 정책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남원시는 27일 김동규 부시장(사진) 주재로 2019년 평가(2018년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자체 합동평가 관련 해당 실·과 부서가 참석해 합동평가에 대비해 평가세부지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책 및 실적 향상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국가 위임사무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정운영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100대 국정과제 중심의 지표를 개발해 국정목표(5개)-국정전략(17)-국정과제

(43)-지표(156개)체계로 재편하였으며, 지표수 감축을 통한 지자체 평가 부담은 완화하고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면서 지표별 성과관리를 위해 절대평가 지표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평가대비를 위해 매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중 지표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김동규 부시장은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지표담당자들이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모든 부서가 협업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지표별 실적관리에 최선을 다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카누 체험교실' 운영

순창군이 무료 카누체험교실을 열어 관광 상품의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9월은 순창군 풍산면 향가마을 앞 섬진강변에서 10월은 순창군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변에서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누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카누체험교실은 해양수산부와 순창군이 후원하고 섬진강수상레저연맹이 주관해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체험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신청·접수하고 안전교육과 노 젓는 방법 등을 교육 받은 후 체험할 수 있다.

탐승인원은 2명으로 1시간 내외로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카누 무료체험교실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섬진강수상레저연맹(위원장 서한봉) 20여명이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여 직접 운영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집중호우 선제적 대응 총력

임실군,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비상대책본부 풀가동 재해·산사태 우려지역 등 집중점검, 농작물 관리 강화

임실군이 태풍 '솔릭'에 이어 찾아온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현재 임실군에는 평균 200mm에 달하는 강우량을 보인 가운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비상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군은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피해가 우려되는 인명 및 사업현장과 관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관광시설을 점검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읍면 합동 공공시설 피해 조사를 실시해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복구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농작물관리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태풍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중점관리에 돌입했다.

군은 재해우려지역 22개소를 비롯하여 산사태집중관리지역 21개소, 저수지 201개소, 비닐하우스 등 농수산 시설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를 갖춘 군은 비상 5단계 대응체계 및 특보발령 시 기상특성 분석 및 상황전파, 13개 협업기능 및 유관기관 합동 상향근무체계도 갖췄다. 인명보호 대책으로는 유관기관 주민대비를 위한 사전 협의 및 이재민 발생 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자를 전진 배치했다. 이외에도 교통관서 합동 사전통제를

통한 교통통제 강화, 직원과 이장, 농가 등을 대상으로 SNS 상황전파 및 국민행동요령을 집중홍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태풍 솔릭이 지나간 데 이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및 재산, 농작물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재난예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행정력을 집중하라"며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는 등 집중호우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 재향군인회 청년단 임실 호국원 참배행사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지난 25일 전주시 재향군인회 청년단(단장 강호진) 제35사단 안보교육을 겸한 국립임실호국원 현충탑 참배 및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8월 한가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35사단 장병위문과 안보교육을 실시하기 전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호국원 묘역 주변 예초작업 등 환경정화 실시했다. 강호진 단장은 "안보단체인 만큼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립묘지 가꾸는 사업에 적극 앞장 설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서 이웃삼촌네 직장체험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에서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체험프로그램과 연계 이웃삼촌네 직장체험을 가졌다.

이번 직장체험은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천사 청소년 멘토링 업무협약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마련됐다.

체험에 참석한 관내 중·고등학생,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회원, 인솔교사 등 30여명은 석유사의 생산 및 역사에 대한 이론수업과 더불어 입사를 위한 실질적인 채용정보, 유사석유 판별 실험, 첨단 장비 소개 및 시험실투어를 통해 실제 직업현장을 피부로 느끼는 값지고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학성 읍장은 "이웃삼촌처럼 친근하고 든든하게 배려해주는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진로상담 및 학업지원 등을 통해 유능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위해 이김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박수갈채 받은 남원 삼동굿놀이

남원 보절면 재연행사 성료 매년 3명의 동자들이 지네 밟아주는 풍속서 유래 공동체적 두레놀이 성격



남원시 보절면은 지난 25일 음력 칠월 백중을 맞아 추진되는 전통세시 민속놀이인 삼동굿놀이를 괴양리에서 성황리에 재연했다.

남원시 보절면(면장 허관)에서는 지난 25일 음력 칠월 백중을 맞아 추진되는 전통세시 민속놀이인 삼동굿놀이를 괴양리에서 성황리에 재연해 시민들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갈채를 받았다고 27일 전했다.

삼동굿놀이보존위원회가 주관한 이번행사는 매년 백중날에 세(3)동자를 앞세워 입신양명 및 마을의 무사와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주민 화합을 위해 열리는 민속놀이로 올해 36회를 맞았으며, 이완주 남원시장과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 및 각 기관단체장들과 재의 향우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게 했다. 이날 행사는 당산제를 시작으로 기세배와, 우물굿, 삼동서기, 지네 밟기, 합굿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삼동굿놀이 재연과 주민화합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해 주민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제공했다.

삼동굿놀이는 일찌기 고려 말 마을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괴양마을 뒷산인 계룡산이 지네모양으로 마치 닭을 해치려고 공격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풍속에 따라, 매년 3명의 동자가 지네를 밟아주는 풍속에서 유래했다.

또한 출산, 성장, 입신출세까지의 상황을 묘사 되는 게 특징으로 잡귀를 쫓아내어 마을의 번영과 주민의 안녕을 빌고, 한해 농사일에 수고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두레놀이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난 1982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지난 2001년에는 지역사회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삼동굿놀이 보존위원회 김성범 위원장은 "앞으로도 삼동굿놀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놀이가 되도록 계승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